

延邊朝鮮族自治州의 文化的 變化에 關한 研究

金 石 柱*

The Cultural Change of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Jin Shizhu*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세계체제론적 시각에서 연변지역의 역사적 변화 시기를 세계체제 주변부로 편입한 일제시기, 세계체제로부터 이탈한 사회주의 시기, 세계체제로 재편입한 개혁개방 이후시기 등의 세 개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문화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세계체제 주변부로의 편입 시기 연변지역은 조선인이 집중된 지역으로서 한반도 문화가 우세하였지만 일제와 중국의 동화정책의 이중적인 영향을 받았다. 세계체제로부터 이탈 시기는 획일적인 사회주의 문화에 동화되도록 강요당하여 전통 문화의 보존이 어려움을 겪었다. 세계체제로의 재편입 시기는 중국정부의 민족정책의 완화로 전통적인 민족 문화가 부활하는 한편, 중국 내륙지역과 한국과의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과 한국문화의 충격을 받아 조선족 문화의 보존과 발전이 어려움을 겪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조선족 사회에서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세방화(globalization)시대에 부합되는 지역적 특색이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조선족 문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연변조선족자치주, 문화적 특성, 세계체제

Abstract : In terms of world system theory, the historical period of Yanbian area was divided into 3 parts: Japan colonial period which was assigned to the periphery of world system, socialist period which escaped from the world system, and the reform-open period that was reincorporated to world system. The cultural character of each period was studied.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 During the period of periphery of world system, Yanbian area as an area where the massed Korean people lived, was dominated by Korean peninsular culture. However, Yanbian area was also affected by the Japanese and Chinese cultural assimilation policy. During the period that Yanbian area aparted from the world system, it was affected by the requirement of unique socialist culture assimilation, and traditional cultures were hard to keep. During the period of reincorporation to the world system with lighten of minority policy by Chinese government, traditional national culture begin revived, but due to extend intercourse of Yanbian with China mainland and Republic of Korea, China-Korean culture of Yanbian area was strongly affected by Chinese and Korean culture too.

Key Words :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cultural characterization, world system.

1. 서론

1) 연구목적

연변지역은 지정학적인 위치, 즉 러시아, 일본, 한반도와 모두 가까운 원인으로 말미암아 연변지역은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속에서 형성되고 발전되고 변화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연변지역의 우리 민족 문화도 자체의 특성을 보존하는 한편 외래문화의 영향으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연변지역은 과경민족(跨境民族)¹⁾이 집중된 지역이라는 특이성 때문에 그 변화가 더욱 뚜렷하다고 할 수 있겠다.

연변지역은 중국 내에서 조선족이 가장 많이 집중해 있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분리될 수 있는 자치지역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지역에는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의 삶이 영위되어 있다. 그러나 청조 시기에 이르러 동북지역의 대부분 지역을 ‘봉금구(封禁區)²⁾’로 정됨에 따라 약 200년 동안 인적이 드문 황지로 방치되었다. 후에 중국이 열강들의 각축장으로 전락하면서 이 지역도 예외 없이 유린을 당하게 되었다. 특히 연변지역은 중국, 러시아, 한반도와 인접해 있고 일본과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특수한 지정학적인 위치로 말미암아 주변 지역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새로운 지역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특히

* 연변대학교 지리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Yanbian University)(jinsz@hanmail.net)

고국인 한국과의 인문적 유대는 연변지역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연변지역의 형성은 세계체제의 재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메이지유신을 통해 일찍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한 일본은 자신들 영토 확장의 일환으로 조선을 침략하고 그 마수를 점차 중국으로까지 뻗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변지역은 일본이 중국의 동북지역을 침략하는 ‘뒷문’³⁾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1907년에 용정에 “통감부간도파출소(統監府間島派出所)”가 설립되었으며, 1909년에 청조와 일본간의 “간도협약(間島協約)”이 체결되면서 연변지역에서의 일본의 세력이 확장되기 시작했다.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조선인의 연변지역으로의 이주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세계체제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당시 반주변부적 위치에 처해 있던 일본이 한반도와 중국의 동북지역을 자신들의 주변부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조선인을 이용하여 연변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연변지역이 본격적으로 개척되고 이에 따라 과경민족이 집중된 연변지역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⁴⁾. 이와 같은 주변부적 특징은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통해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세계는 중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냉전구도가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중국은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 철회함에 따라 연변지역도 자연스럽게 세계체제로부터 철회하게 되었다.

그 후 개혁개방과 동북아 주변국 사이의 긴장관계가 완화됨에 따라 연변지역은 다시 중국의 세계체제로의 재편입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연변지역의 형성과 발전은 세계체제와 갈라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변지역의 문화의 변화도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연변조선족자치주 문화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소수민족민속자료”(1:2집, 1985, 중앙민족학원), “조선민족의 다채로운 민속세계”(1986, 민족출판사), “중국조선민족연구”(황유복, 1987, 요녕민족출판사), “조선족민속사연구”(1988, 요녕민족출판사), “조선족민속연

구”(제1권, 1991, 연변대학출판사) 등과 같은 민족지적인 성격의 연구물들은 연변조선족의 민속을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하였을 뿐, 민속의 내원과 수집에 관한 구체적인 출처와 근거가 부족하여 연구에 인용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둘째, 역사와 민속에 대한 연구가 많고 사회과학적 접근이 부족하다. 연구물이라고 해도 사회과학 연구의 이론적 바탕이 얇은 중국식 사회과학연구의 한계⁵⁾와 연구 자료의 미비로 말미암아 심층적인 연구가 적고 개론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현지 조사를 결부한 미시적인 분석이 결여되어 문제점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인문지리 측면의 접근이 적고 연구방법론이 미진하다. 자연지리적 측면의 연구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지만 인문지리 측면에서의 연구는 위에서 지적한 중국 사회과학의 낙후성과 사회과학연구방법론상의 후진성으로 말미암아 연구물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해도 대부분이 전통적인 지역지리학 측면에서의 연구들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연변지역이 세계체제로 편입·이탈·재편입하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세계체제의 영향 하에 문화적 특성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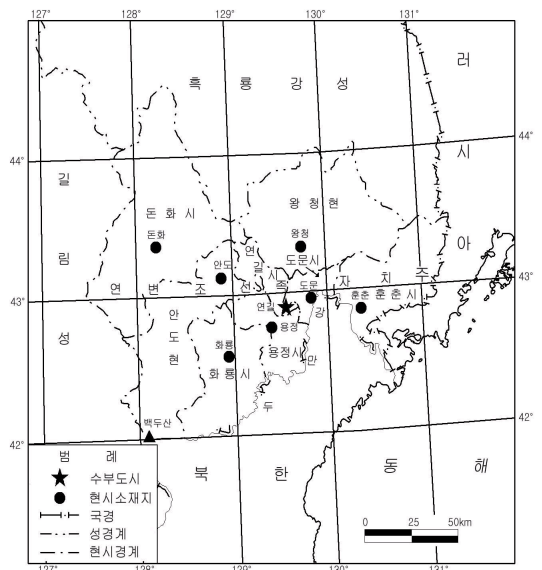


그림 1. 연변지역 행정구역도

2) 연구방법과 자료

본 연구에서의 시기구분은 연변지역이 세계체제와 맺고 있는 관계의 변화에 따라 진행된다. 연변지역은 “간도협약”이 체결된 이후 당시 세계체제에서 반주변부로 급부상한 일본의 세력권에 편입됨으로써 세계체제의 주변부로 전락하였다. 물론 “간도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도 연변지역과 청국의 여타지역 및 조선 및 러시아 사이에는 일정한 경제적 내왕이 있었지만 연변지역은 아직 원료와 농산물 공급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도협약” 체결이후, 일제는 연변지역의 광물과 삼림자원을 약탈하기 위하여 자금과 인원 침투가 이루어 졌으며, 그 후에는 본격적인 농산물 약탈도 시행되었다. 때문에 연변지역이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편입된 시기는 “간도협약”이 체결된 이후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이후 연변지역이 중국 내의 소지역으로서 중국의 세계체제로의 이탈과 함께 이탈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다시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로 재편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변지역은 중국의 연해지역에 비해 편입된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다. 이는 연변지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와 당시의 국제정세와 관계된다. 연변지역은 소련과 북한과의 접경지역으로서 중국의 대외방위전략의 최전방에 위치한 제1선 지역이다. 남북의 분단상황은 중국으로 하여금 항상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게 하였고, 중소관계는 개혁개방 초기인 1979년까지만 하여도 1952년 체결한 ‘중소우호동맹조약’의 종결을 선언할 정도로 긴장상태에 있었다(林軍, 1989). 따라서 연변지역은 ‘전쟁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었다(延邊朝鮮族自治州計劃委員會, 2001). 따라서 연변지역은 중국의 연해 개방지역과는 달리 1980년대 초까지 아직 자본주의세계체제에 편입되지 못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연변지역에서도 경제체제개혁을 실시하였다. 1984년 9월 27일에 연변조선족자치주 제8기 인민대표대회 제11차 회의에서는 ‘도시 경제체제개혁을 진행할 것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에서는 도시의 국영기업에 대한 개혁을 시작하여 소유제 다양화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외자를 적극 유치하여 기업의 경

제적 효과성을 높이도록 고무하였다. 이에 따라 연변지역에서 외자에 의한 합작회사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는데, 1984년에 처음으로 홍콩과 공동 투자하여 길흥종이제품공장(吉興紙製品廠)을 설립하였다. 이후부터 연변지역은 본격적으로 대외교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연변지역의 세계체제로의 재편입시기는 1984년을 기점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체제론적 관점에서 연변지역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세계체제의 주변부로 편입한 일제시기(1909~1949), 세계체제로부터 이탈한 사회주의시기(1949~1984), 세계체제의 반주변부로 재편입한 개혁개방 이후시기(1984~현재)로 구분하였다.

연변지역과 같이 과경민족이 집중된 지역이 주재국과 모국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문화적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문화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언어, 종교, 생활문화 등이므로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료의 보안을 위하여, 특히 문헌자료가 미비한 문화적 특성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03년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연길과 화룡 및 용정의 도시와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⁶⁾. 설문내용은 설문대상자의 속성과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의 문화적 특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총 500부 배포하였는데, 그 중 유효한 것이 463부이다. 개혁개방 이전의 사항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는 각 연령별 응답자 중 40세 이상부터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조선족과 한족 이외의 민족은 그 수가 적어 의미가 없기에 제외시켰다. 자료는 SPSS Win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2. 일제시기 연변지역의 문화적 특성

1) 언어

조선인들은 연변지역으로 이주한 후, 대부분은 조선인끼리 모여 취락을 형성하였다(김춘선, 2001). 그리하여 이들은 대부분 타민족과의 접촉이 적은 상대적으로 폐쇄된 생활을 하여 한반도의 언어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다. 연변지역으로 이주한 조

선인들은 함경도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함경도 방언이 우세했다. 이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 이주초기에 적지 않은 서숙(書塾)을 설립하고⁷⁾ 자녀들을 교육시켰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되자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연변지역으로 이주하였다. 그리하여 연변지역에서는 신식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근대적인 조선인 학교가 설립되어 후대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당시 조선인 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사람들은 대부분 한반도에서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었다. 때문에 조선인 학교에서의 국어 교육은 모두 한반도의 체계를 따랐다. 문법에 있어서는 1908년 조선에서 출판된 한글 문법에 관련된 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교재들은 모두 교원들이 자체로 편찬한 것이었다(孫春日, 2002). 그리고 표기법에 있어서는 조선어학회의 ‘한글맞춤법통일안’(1933년)과 ‘시정한 한글표준말 모음’(1933년)에 준하였다(박영순, 1988). 이와 같이 한반도에서 전해진 한글 교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한글로 된 출판물들이 속속 출판되게 되면서 조선어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적 환경이 마련되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주변부로 편입된 후 일제는 조선인의 민족교육에 대해 간섭하고 파괴하기 시작하였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 양상은 유럽 제국의 식민지 지배 양상과 매우 다른 특징을 나타내었다. 유럽은 식민지 지배하의 동남아인을 유럽인과 같이 만들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제는 한반도와 연변지역을 지배함에 있어서 경제적 영역은 물론이고 정치적, 문화적으로 조선인을 완전히 동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유석춘, 1999). 일제의 조선인 민족교육에 대한 간섭과 통제는 1907년 8월에 ‘통감부간도입시과출소’가 설치되면서부터이다. ‘통감부간도입시과출소’에서는 친일교육기관의 설립을 결정하고 서진서숙과 같은 민족학교를 폐쇄시키고 일본인이 경영하는 보통학교와 사립학교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일본은 이들 학교를 통해 조선인들에게 친일교육을 시키는 동시에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하였다.

만주사변 이후, 일제는 동북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에 대한 식민지 노예교육을 더욱 강화하였다.

일제는 1935년 12월 13일에 동북지역의 모든 학교들에서 일본어를 ‘국어과’로 정하여 수업하도록 하는 ‘소학교 교과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1938년 ‘신학제’가 실시되면서 일본어를 ‘국어’로 정하여 강의 시수가 가장 많았고 조선어는 선택과목으로 정하였다. 1940년 조선인에 대해 ‘창씨개명’을 요구한 이후부터는 조선어 사용을 일절 금하고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강요하였다(孫春日, 2002).

그러나 조선인들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민족학교를 바탕으로 광복전까지 일제의 민족교육 탄압에 대항하여 계속적으로 조선어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조선인들로 하여금 민족언어를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계근호, 2001). 이와 같은 연변지역 조선인들의 민족교육열은 이후 중국에서 우리 민족의 언어와 문자가 계속 존재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여 주었다. 이는 일본 체제에 대항하는 민족주의의 발현으로서 당시 조선인의 강렬한 반체제운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2) 종교

이시기 연변지역의 종교에는 주로 한반도의 조선인이 연변지역으로 이주함에 따라 전파된 조선의 민족종교와 불교, 한반도를 걸쳐 유입된 기독교와 같은 외래종교, 중국인들의 유교, 도교, 불교, 일본인에 의해 전파된 신도(神道) 등이 있었다. 그중 세력이 가장 큰 것이 조선인의 기독교였다. 당시 연변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이주민인 조선인들은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치안 부재의 사회 불안 속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했으므로 심리적·정신적 안정과 평안을 갈망하게 되어 각종 종교를 믿는 경우가 많았다. 그 중에서 기독교는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성향과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어우러져 당시 서양 선진국의 종교이자 우리 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종교로 인식되었다(채현석, 1994).

연변지역 조선인 교회 발전의 원동력이자 구심점은 민족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조선인 사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압력 때문에 표면적으로 정치 사회단체를 조직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구미 선교사들의 치외

법권 입장을 철저히 활용할 수 있는 교회를 사회 결사의 매개체로 삼았다. 1906년 이상설이 독립운동의 기지를 개척하기 위하여 용정촌에 망명해 와서 대불동교회를 설립한 것이 그 효시이다(채현석, 1994). 기독교계 민족주의자들은 동북지역 곳곳에 교회를 설립하여 국권회복을 위해 기독교도들이 단결해야 하며, 기독교도로 뭉쳐 민족운동을 전개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운동과 민족운동이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기독교 신앙의 최종목적은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으로 삼고 있었다. 따라서 일제는 그들의 입교동기를 종교적인 것보다 정치적, 사회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일제는 “만주의 기독교인들은 모두 독립운동에 전념하는 민족주의자들이며, 교회는 독립운동의 정치적 결사이며 그러한 부정 조선인들의 소굴”(김정명, 1967)로 인식하였다. 때문에 조선인 교회가 일제에 의해 당하는 혹독한 수난의 원인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연변지역에 있는 조선인 교회가 민족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교회로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선교사들이다. 당시 한반도 선교사들은 미국 정부의 비정치화 정책에 맞추어 조선민족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지 못했지만 연변지역의 캐나다 선교사들은 배일적 태도를 분명히 표방했고 조선인들의 민족운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었다(인병국, 1997). 그리하여 연변지역은 당시 일제의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항하는 반체제적인 성격이 가장 강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당시 연변지역은 도시는 물론 농촌에도 조선인이 집중된 곳이면 거의 교회가 있을 정도로 밀집되었다고 한다. 특히 용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었다. 1925년 연변지역의 조선인 기독교 교회수는 116개이며 신도수가 17,548명에 달하였는데, 그중 용정에만 해도 12,305명에 달했다(현규환, 1967).

기독교 단체들은 무장투쟁으로서 일제의 통치에 대항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일제의 대대적인 토벌로 교회와 교인들은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인력에 지나친 참상을 겪고 난 후 조선인 교회는 일제의 침략에 대한 무력적 저항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물리적 저항운동보다는 정신적, 영적 차원의 운동이 필요함을 느끼고 민족의 해방

은 신앙각성운동을 통한 내면의 변화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만이 교인들을 좌절에서 건져내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다(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록, 1922). 이와 같이 기독교 단체들의 독립운동이 위축됨에 따라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기독교의 반일상층인사들이 일제의 토벌에 질겁하여 북소리를 멈추고 반일 기치를 집어던지며 순교자적인 경향으로 나가면서 구세촌 건설을 설교하는”(연변조선족략사편찬조편, 1986, 257) 것으로 균중을 유혹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기독교의 무장독립운동이 위축된 이후, 일제의 압박을 상대적으로 받게 되었고 교회는 다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후에 공산주의세력의 침투가 심화되면서 모든 종교를 미신으로 치부하는 이데올로기적 성향 때문에 기독교 세력은 점차 약화되게 되었으며, 특히 일제가 패망한 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반도로 귀환⁸⁾함에 따라 기독교 세력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3) 생활문화

문화적으로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연변지역은 조선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으로서 한반도의 생활문화가 우세하였다.

의복에 있어서 조선인은 월경(越境) 민족으로서 이주하여올 때 조상전래의 민족 복장을 입고 왔다. 이주 초기에는 전통적인 조선풍속을 유지하여 남자는 저고리, 바지에 겹옷으로 두루마기를 입었으며, 여자는 저고리, 치마, 바지를 입었다. 그러나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이 심화됨에 따라 학교에서는 일본 학생복을, 청장년들은 일본식 ‘협화복’을 입도록 강요하였으며, 아랫다리에는 이른바 ‘각반’을 치게 하였다. 여성들은 전통적인 치마를 입을 수 없었고 일본식 바지인 ‘몸빼’라는 바지 같은 것을 입게 하였다. 도시에서는 양복을 입는 사람들이 많았다(박경휘, 1994).

음식에 있어서 만주국 설립 이전까지는 일제의 식량 통제가 심하지 않아 조선인들이 식량난을 크게 겪지 않았으며 음식문화도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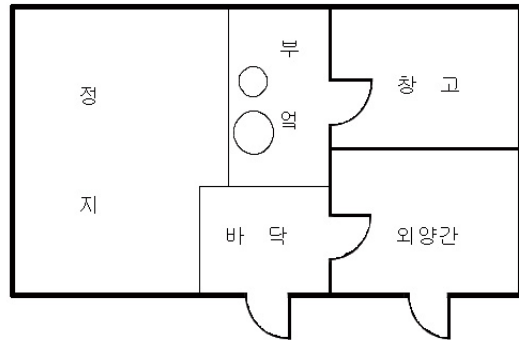
조선인들은 음식에서는 조, 돌피, 콩, 보리, 감자 등을 주식용 양곡으로 하고, 육류와 남새를 부식품으로 한다. 겨울에는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많이 먹고 여름에는 물고기와 개고기를 많이 먹는다. 또한 고추, 파, 마늘 같은 것을 즐기며 요리를 만들 때에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된장을 많이 사용한다(훈춘현지, 1927).

그러나 만주국 설립 이후에는 일제의 통치가 심화되면서 식량 유통을 통제하는 제도들이 제정(박경수, 1987)되어 조선인과 한족 서민들의 식량난이 가중되었다. 매년 탈곡이 끝나면 벼농사를 짓는 조선인 농민들에게서는 벼를 빼앗아 가고, 약간의 좁쌀을 주었으며, 밭농사를 짓는 조선인과 한족들에게서는 출하 임무에 따라 조, 콩, 보리 같은 것을 빼앗아 가고, 약간의 수수쌀을 주었을 뿐 이었다(김경식, 2001). 그리하여 조선인들은 해마다 극심한 식량난을 겪게 되었다. 이는 다음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음식은 일반적으로 조와 옥수수를 주식용 양곡으로 하고, 남새와 소금에 절인 물고기를 부식으로 하며, 된장과 고추는 없어서는 안되는 식품으로 되었다. 육류 등 반찬은 극히 희소하다. 조선인들은 재간이 있으나 도시에서 사는 부잣집을 제외하고는 이밥에 육불이를 먹으며 사는 형편이 못된다(민족, 1935).

따라서 이 시기 대부분의 서민계층은 배급 식량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류마저도 한정되어 음식문화를 보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가옥에 있어서는 연변지역에 일제에 의한 조선인 이주자가 증가함에 따라 조선인 인구 비중이 높아져 조선식 가옥이 주를 이루었다. 그들은 조선에서 고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보니 출신지가 다름에 따라 가옥 구조가 달랐다(장보웅, 1992). 조선인 중 대부분이 함경도 출신이었기에 함경도식 가옥이 많았다. 당시 함경도 가옥의 원형은 흑한을 이겨내기 위하여 방과 부엌의 구별 없이 방안에 방바닥과 같은 높이로 술을 걸고 부엌을 설치하여 보온이 잘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림



자료: 김준봉 등, 2000, p.81의 모식도와 현규환, 1967, p.356의 내용을 결부하여 그린 것임.

그림 2. 연변지역 함경도식 가옥의 원형

2>와 같이 부엌 옆에 외양간을 붙여지어 사람과 가축이 동거하는 조잡한 양상을 나타내었다(현규환, 1967).

그리고 장손이 있는 집에는 신주를 모시는 사당방(祠堂房)을 설치하였다. 한족지역에 산재한 조선인들의 주택은 한족의 영향을 받아 중국식 가옥(여기서 말하는 중국식 가옥이란 중국 동북지역의 한족이나 만주족의 가옥을 지칭함)의 형태로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박경휘, 1994).

놀이문화에 있어서 당시 연변지역으로 이주한 농민들의 생활양식이 한반도와 별반 다를 바 없었기에 한반도에서 행해지던 놀이문화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었다. 조선인 농민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설고 황량한 땅에 정착하려니 자연히 두레를 조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르는 농악이 갖추어지게 되면서 힘든 일이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의례적으로 농악을 치게 되었다. 1930년 전후로 왕청현의 연통라자(煙筒拉子), 화룡현의 두도(頭道), 안도현의 남도(南道), 그리고 1940년경 연길현의 팔도(八道) 등지에서 농악놀이를 했다(김영원, 1992). 그리고 조선인들은 자발적으로 각종 체육단체를 만들어 전통적인 명절을 맞으면 그네뛰기, 시소, 씨름, 밧줄 당기기, 축구와 같은 전통 체육놀이를 즐겼다. 그러나 일제의 통치가 심화됨에 따라 각종 체육단체들은 해체되거나 일제의 휘하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전통적인 체육놀이도 일제의 감시를 받게 되었다(孫春日, 2002).

3. 사회주의 시기 연변지역의 문화적 특성

1) 언어

이 시기 연변지역의 조선어 교육은 북한의 영향을 많이 받아 언어체계에서 북한의 문법을 그대로 따랐다. 함경도출신이 60~70%이고, 북한과 중국이 혈맹관계인 점을 고려할 때 북한지역 언어의 지배는 당연한 것이었다(한상복·권태환, 1993).

연변교육출판사에서는 북한의 교재를 표본으로 하여 조선족 역사, 조선지리 등 교과서를 수정출판하였다. 중국의 조선족 학교들에서는 1953년 가을부터 조선어문(연변대학교육학심리학교연실·연변민족교육연구소편, 1987) 교과서에서 한자혼용을 폐지하고 한글전용으로 전환하였다(남일성, 1995). 이는 조선족 학생들이 중국어와 조선어를 공부하는 외에 한문도 공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한 것도 있지만 1949년 북한에서 한자혼용을 폐지(남일성, 1995)한 영향도 받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조선족들이 북한의 언어와 문자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예를 들면, 1963년 6월 주은래(周恩來)는 조선어 규범에 대하여 조선어는 “평양의 표준어를 전형적 표준어”로 해야 하며, “민족 언어는 한어화 되지 말아야 하고 서양화도 되지 말아야 하며, 자기민족의 형식을 살려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하였다(장위원, 1994). 따라서 이시기 연변지역의 언어 교육의 발전은 북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건국 후 연변지역의 교육사업은 중국공산당의

“민주주의적 문화운동을 실행하고, 노예화 교육을 폐지”하고, “민족단결과 평등을 고양하며, 한족과 조선인의 정치, 경제, 문화적 평등을 보장”하는 교육방침에 근거하여 발전되었다(延邊朝鮮族自治州教育志編纂委員會編, 1992). 따라서 연변지역의 민족 교육의 목표는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민족자치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민족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민족정책으로 인해 조선어는 보존·발전될 수 있었다.

건국 초기 중국의 경제건설은 혈맹인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때문에 러시아어에 익숙한 인재 수요가 많았으므로 중학교에서의 외국어교육은 러시아어 위주였다(張國強, 1997).

그러나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 시기에 접어들면서 연변지역의 민족교육사업도 결코 순탄치는 않았다. 특히 문화대혁명 시기에 민족주의는 곧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주의적’이라는 그릇된 사조의 영향으로 민족교육사업은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당시 조선어는 ‘조선어 무용론’과 조선어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이른바 ‘조선어 혁명론’에 의하여 조선어 어휘가 줄어들고 중국어 어휘가 증가하여 표현력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연변대학교육학심리학교연실·연변민족교육연구소, 1987). 이는 현재 연변지역의 조선어 중에 중국 어휘를 직역되어 사용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리하여 조선족 중 중국어를 사용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다음의 설문조사에 의해 확인된다. “개혁개방 이전 직장과 가정에서 조선어와 중국어 중 어느 것을 주로 사용했습

표 1. 개혁개방 이전 조선족과 한족의 언어사용 상황

(단위: 명, ()안은 %)

언어	지역	도시지역			농촌지역			전체		
		조선족	한족	계	조선족	한족	계	조선족	한족	계
조선어	직장	47(47.0)	1(2.5)	48(34.3)	123(83.1)	3(5.4)	126(62.1)	170(68.5)	4(4.2)	174(50.2)
	가정	94(78.4)	2(3.9)	96(56.1)	139(94.6)	3(5.4)	142(70.3)	233(87.3)	5(4.7)	237(63.5)
중국어	직장	20(20.0)	36(90.0)	56(40.0)	4(2.7)	49(89.2)	53(26.1)	24(9.7)	85(89.5)	112(32.0)
	가정	7(5.8)	48(94.1)	55(32.2)	3(2.0)	50(90.9)	53(26.2)	10(3.7)	98(92.5)	108(28.9)
혼용	직장	33(33.0)	3(7.5)	36(25.7)	21(14.2)	3(5.4)	24(11.8)	54(21.8)	6(6.3)	62(17.8)
	가정	19(15.8)	1(2.0)	20(11.7)	5(3.4)	2(3.7)	7(3.5)	24(9.0)	3(2.8)	27(7.2)
합계	직장	100(100.0)	40(100.0)	140(100.0)	148(100.0)	55(100.0)	203(100.0)	248(100.0)	95(100.0)	343(100.0)
	가정	120(100.0)	51(100.0)	171(100.0)	147(100.0)	55(100.0)	202(100.0)	267(100.0)	106(100.0)	373(100.0)

자료: 설문조사.

니까?”라는 설문 결과는 <표 1>과 같다.

위 표에서 조선족은 가정보다는 직장에서,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시와 직장에서 한족들과 접할 기회가 더욱 많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2) 종교

일제가 패망한 후, 연변지역의 교회는 교회신도들의 대거 귀환과 공산주의자들의 교회에 대한 제약 때문에 세력이 급속히 약화되게 되었다. 그러나 1949년 9월 29일 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 제1장 제5조와 1954년 제정된 헌법 제88조에 종교신앙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어(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1992) 본격적인 종교탄압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리하여 광범위한 신도들은 공산당의 요청에 따라 반제(反帝)애국주의 투쟁을 전개하였고 공산당의 종교신앙 자유정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의 영향으로 연변지역 교회의 성격은 민족주의 성향의 민족교회로부터 친사회주의 성향의 조선족교회로 바뀌게 되었다. 즉 조선족교회는 건국 전 민족주의를 고양하는 조선인교회의 연장선인 것이 아니라 건국 이후에 중국정부의 영향 하에서 종교활동을 하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로 변화한 것이다. 당시 연변지역에 있었던 주요한 조선족교회는 연길교회였다. 예배당은 김강선 목사가 시공하여 서금선 목사가 준공하였다(인병국, 1997). 그러나 1957년 이후 좌경 세력의 영향으로 종교신앙 자유정책은 점차 부정되고 당과 정부의 종교사업이 파괴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종교계의 애국인사와 일반신도들까지도 독재의 대상이 되었고 일체의 종교활동이 금지되는 심각한 국면이 초래되었다(허 원, 1996). 연길교회도 근근이 맥을 이어 오다가 1966년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완전히 폐쇄되었다(인병국, 1997). 당시 서구 자본주의 사회와 적대적 긴장 관계에 있던 중국으로서는 서양으로부터 유입된 천주교와 기독교와 같은 종교를 탄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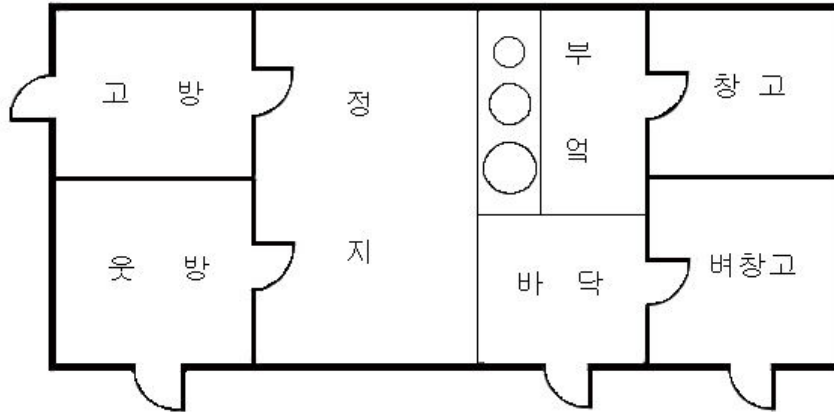
3) 생활문화

의복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의 전체주의 경향으로 국가적 강제를 받은 흔적이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 당시 중국 전역에서 가장 보편화된 의복은 중산복⁹⁾이었다. 조선족도 예외는 아니어서 청년층은 거의 모두 ‘중산복’을 착용하였다. 그리고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청년들이 한족이나 조선족 모두 국방색 군복을 모방한 ‘홍위병복장’을 착용하였다. 전통적인 의복은 조선족과 한족 모두 나이든 사람들과 여성들에게서 일부 발견될 뿐이었다.

음식에 있어서는 당시 농촌에서 인민공사 집단 생산체제를 실시하여 농민들의 생산적극성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생산된 식량은 전부 국가에 상납한 후 다시 배급 형식으로 분배하였기에 전 사회적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었다. 때문에 당시에는 배불리 먹는 것 자체가 목적으로서 음식문화를 따질 여유가 없었다.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식량 사정이 조금씩 나아져 조선족과 한족들의 음식생활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조선족과 한족은 음식의 맛과 영양을 추구하게 되면서 각자의 음식문화를 회복하게 되었다(김경식, 2001).

가옥에 있어서는 건국 후 농촌에서 추진된 주택 개선 사업으로 귀틀집과 초막집이 사라지고, 조선족의 초가집과 한족의 흙도집이 점차 벽돌집으로 바뀌었다. 내부구조에 있어서는 생활공간이 이전보다 확장되면서 창고와 방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그림 3>과 같이 조선족 가옥은 인민공사 집단생산체제를 실시함에 따라 생산대대마다 집체외양간이 설치되어 각 가옥에 붙어 있던 외양간이 모두 사라졌다(박경휘, 1994). 그리고 이 시기에는 전통적인 풍습들이 금기시되다보니 신주를 모셨던 장손집의 사당방(祠堂房)도 사라지게 되었다. 도시에서는 직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주택을 제공함에 따라 같은 직장인들이 모여 사는 직장 단위의 집합주택이 보편적이었다.

놀이문화에 있어서 당시 민족문화를 부정하고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적인 동화를 강요함에 따라 농악과 같은 전통적인 민속놀이는 타파되어야 할 구습으로 치부되어 농악기구들이 불태워지고 화투와 윷놀이와 같은 전통 놀이도 금기시되었다(강위원, 2001). 그러나 도시에서는 직장 단위로, 농촌에서는 생산대대 혹은 인민공사 단위로 집단생활의



자료: 김준봉 등, 2000, p.81.

그림 3. 연변조선족자치주 일반형 농가의 모식도

유지와 적응에 도움이 되는 축구, 배구, 농구 등과 같은 체육운동이 보편화되었다(김경식, 2001).

결론적으로 이시기는 1957년부터 중국공산당에 의해 전개된 반우파운동, 인민공사운동, 문화대혁명 등을 거치면서 소수민족 문화가 획일적인 사회주의 문화에 동화되도록 강요당하는(김영모, 1992) 시기로서 조선족 문화도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획일화된 사회주의 문화에 동화되어 민족적 특징이 소멸되었다.

4. 개혁개방 이후시기 연변지역의 문화적 특성

1) 언어

연변지역의 가장 큰 언어집단은 중국어를 구사하는 한족과 기타민족이고 두 번째 언어집단이 조선족이다. 중국어는 중국의 공식적인 언어로서 큰 변화가 없으나 조선어 교육과 이용에 있어 개혁개방이후 외부와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위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이탈시기의 조선족 교육은 사회주의의 이념에 입각해 이루어 졌다. 특히 문화대혁명 기간에 민족주의 자체가 반사회주의적이고 반혁명적이라는 이유로 거부되었고 전반적인 교육목표의 수정과 함께 민족교육도 부정되었다. 그러나 강한 민족적 자부심은 조선족으로 하여금 자체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비교적 훌륭하게 보존

할 수 있게 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가 민족적 정체성의 보전을 강조함에 따라 이에 따른 민족정책이 다시 부활되었고 학교교육이 이러한 정책의 도구로서 중요성을 갖게 됨에 따라 조선어도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다.

소수민족 언어에 대한 관대한 정책은 조선족 고유의 언어와 문자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연변지역의 언론, 문학, 예술 등의 분야에서 조선어로 된 신문과 간행물 및 예술 작품들이 발행됨에 따라 조선어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문자적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조선어로 대학교 입시시험을 칠 수 있게 되어 조선어는 더욱 중시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개혁개방이 진척됨에 따라 외부와의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연변지역의 언어에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학교의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개혁개방 이후 외국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이고 외국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교육부에서 1981년 제정한 ‘전일제 6년제 중점중학교 교학계획(시행초안)’과 ‘전일제 5년제 중학교 교학계획(시행초안) 수정의견’을 근거로 각 지역에서 자체 지역의 실정에 따라 영어와 일본어 및 러시아어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연변지역에서는 조선족 중학교에서 일본어를 개설하고, 한족중학교에서 영어를 개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영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영어과목을 개설하는 조선족 학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어 전문학교와 외국어 학원들이 급증하여 외

국어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 종교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주은래에 의해 주창되었던 종교오성론(宗教五性論)(군중성, 민족성, 장기성, 국제성, 복잡성)을 바탕으로 종교문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여 1979년 3월 16일 개최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통일전선사업과 민족종교사업에 썩었던 투항주의, 수정주의 노선이라는 죄명은 전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임’을 선언하였다(허윈, 1996).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기독교를 비롯한 각 종교단체들이 활성화되게 되었다.

개혁개방 초기에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에서는 문화대혁명시기에 몰수했던 교회당과 기타 부동산을 종교단체에 반환하였고 종교계 인사들의 정치 참여를 적극 권장하였으며, 각종 종교단체들의 활동을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기독교협회’, ‘기독교삼애국운동위원회’, ‘천주교애국회’, ‘천주교교무위원회’, ‘이슬람교협회’와 같은 종교단체들이 회복·신설되었다. 그중 교세의 확장이 가장 빠른 것이 기독교이다. 1981년 동북지역 조선족 교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였던 연길교회는 다시 문을 열게 되었다(김성태, 1997). 이를 계기로 연변지역의 여러 지역들에 기독교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연변지역에서 교회의 본격적인 확대는 서민들이 기독교에 대한 갈망과 추구도 있었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한국 선교사들의 연변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선교활동의 결과이다. “개혁개방 이후, 연변지역 종교의 전파는 어느 국가의 영향이 큼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에서

와 같이 전체 응답자 중 71.5%의 주민들이 한국이라고 답하고 있어 타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연변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한 초기의 선교사들은 주로 미국 시민권을 소지한 재미교포들이었다. 그들이 연변지역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한 것은 1986년경이었다. 그러나 연변지역에 조선족 교회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된 90년대 이후부터이다. 한국교회는 연변지역에 대한 선교를 중국선교와 북한선교의 ‘전초기지’로 삼고 중한수교 이후 조선족에 대해 선교하기에 이른 것이다. 정확한 통계는 어렵지만 90년대 초기 조선족교회의 99%가 한국교회와 교류하고 있다고 한다(인병국, 1997, 45~58). 그리하여 90년대부터 연변지역의 기독교회는 급속한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1992년 12월 교회당 41개, 신도 7,762명, 목사1명, 장로8명을 비롯한 152명의 교직자가 있었고(金炳浩, 1997), 1995년에는 교회당이 86개, 처소 111개 있었으며(潘龍海 등, 1997), 1996년에는 교회당과 처소가 100여 개에 달했고, 신도 수는 13,000여 명에 달했다(金炳浩, 1997). 연변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연길교회는 1996년에 3,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예배당 건물이 완공되었으며, 신도수는 3,000여명에 이르고 있다(김성태, 1997).

요컨대 연변지역에서의 종교의 급속한 발전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가 종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고, 한중수교가 이루어지면서 한국 기독교회의 힘이 중국의 종교 시장에 적극 개입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3) 생활문화

이 시기 외부와의 교류가 밀접해 짐에 따라 외래문화, 특히 한국 문화의 충격으로 연변지역의 의식주 및 놀이문화에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의복의 경우 연변지역에서 유행되는 저고리, 치마 등과 같은 전통복장은 한국과 많은 유사성을 보여 그동안 전통의 준거로 삼고 있던 북한보다도 한국의 영향이 우세를 점하게 되었다. 그리고 평상복에 있어서도 과거의 중산복 일색에서 점차 한국

표 2. 개혁개방 이후 연변지역 종교의 전파

(단위: 명, ()안은 %)

지역	조선족	한족	합계
중국	41(14.5)	15(11.8)	56(13.6)
북한	24(8.5)	8(6.3)	32(7.8)
한국	205(72.4)	88(69.3)	293(71.5)
일본	8(2.8)	7(5.5)	15(3.7)
기타	5(1.8)	9(7.1)	14(3.4)
합계	283(100.0)	127(100.0)	410(100.0)

자료: 설문조사

의 유행을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패션이 유행되고 한국의 의류 판매가 보편화됨에 따라 조선족과 한족 모두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현대적인 복식문화의 영향으로 서로 비슷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김경식, 2001, 233-234). 그러나 조선족의 경우 명절이나 의례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식의 민족복장을 애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음식의 경우 농업생산성이 높아지고, 농산물의 시장판매가 자유로워짐에 따라 음식 종류가 다양해졌으며, 배불리 먹는 것이 목적이던 데로부터 영양과 맛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김경식, 2001, 222). 특히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한국을 다녀온 조선족이 증가하면서 한국 음식문화가 급속히 전파되어 한국식의 음식점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과 현대식 음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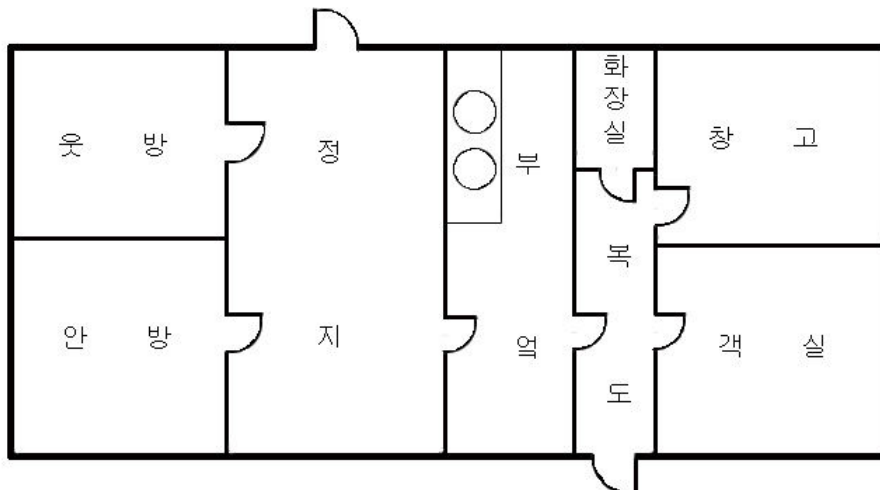
한편 연변지역보다 서양의 음식 문화를 일찍 접한 한국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서양음식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현재 연길시에는 햄버거, 피자, 돈까스, 치킨 등 서양음식을 경영하는 음식점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코카콜라와 같은 음료들도 보편화되고 있다.

가옥구조도 80년대에 들어와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외부와의 교류가 밀접해짐에 따라 뚜렷한 변화

를 나타냈다. 농촌에는 대부분의 초가집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침실, 객실, 위생실 등이 설치된 현대식 가옥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김경식, 2001, 263-265).

도시에서는 주택 재개발 붐이 일고 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건설현장이다. 한족과 조선족의 아파트 내부구조는 1990년대 이전과 비교할 때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는데, 1990년대 이전에는 한족과 조선족 아파트 내부구조에서 차이가 있었지만¹⁰⁾ 현재는 거의 전부 한국식으로 바뀌어 차이가 없다¹¹⁾. 그리고 아파트 난방도 온돌과 라디에이터식으로부터 한국식 온수바닥 난방으로 바뀌고 있다.

놀이문화에 있어서는 개혁개방 이후 생활수준의 향상과 한국의 지원으로¹²⁾ 개혁개방 이전에 사라졌던 전통적인 명절 민속놀이들¹³⁾이 점차 부활하고 있다¹⁴⁾. 또한 도시에서는 한국 관광객의 증가와 한국체류경험이 있는 조선족들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소비문화가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속의 작은 서울’이라고 불리는 연길시의 경우, 2002년 말 현재,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된 노래방이 143개, 다방이 550개, 안마시술소가 126개 있는데, 미등록 된 경우를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전통적인 문화를 보존하고 인문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연변조선족자치주 설립일인 9월 3일을 ‘연변조선족민속



자료 : 박경휘, 1994, p.159와 김경식, 2001, pp.263 ~ 265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그림 4. 연변조선족자치주 농촌 현대주택 모식도

절'로 정하고 전통적인 민속놀이 위주의 놀이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전통 민속문화의 보존을 꾀하고 있다.

5.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본 연구에서는 과경민족인 조선족이 집중된 중국 연변지역이 어떻게 세계체제라는 거시적 환경속에서 주재국과 모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역의 문화적 성격이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체제론적 관점에 따라 중국속의 소지역인 연변의 지역성 변화 시기를 세계체제에 강제적으로 편입된 일제시기, 세계체제로부터 이탈한 사회주의 시기, 세계체제 반주변부로 재편입한 개혁개방 이후시기 등의 세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 연변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성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시기에는 조선인이 압도적으로 많아 한반도 문화가 우세하였다. 언어에서는 초기에 조선인 인구의 급증으로 조선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였으나, 일제의 강요된 동화정책으로 일본어 사용이 증가하였다. 종교의 경우는 이 시기에 조선인의 이주와 함께 유입된 기독교를 비롯한 외래 종교와 천도교, 시천교, 원종교 등과 같은 민족종교가 급속히 확산된 시기로 볼 수 있다. 생활문화에서 의복은 민족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였다. 그러나 조선인은 일본의 강압에 의해 중국과 일본식 의복을 착용하도록 강요당하였다. 음식의 경우 만주국 설립 이전까지는 일제의 식량 통제가 심하지 않아 음식문화를 보존할 수 있었지만, 만주국 설립 이후에는 식량통제가 심하여 배급식량의 종류가 한정되었다. 그리하여 식량난으로 음식문화의 보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가옥에서는 조선인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조선식 가옥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주자 출신 지역에 따라 가옥 구조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그 중 함경도식 가옥구조가 주를 이루었다.

둘째, 사회주의 시기는 1957년부터 중국공산당에 의해 전개된 반우파운동, 인민공사운동,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소수민족 문화가 획일적인 사회주의 문화에 동화되도록 강요당하였다. 구체적으로 언어에 있어서는 '조선어 무용론'의 영향으로 언어

교육이 좌절을 겪었으며, 중국어를 사용하는 조선족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중학교 외국어 교육은 러시아어 위주였다. 종교에 있어서는 종교를 배척하는 사회주의 이념에 의해 종교활동이 금지되었다. 생활문화에서는 획일적인 사회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한족과 조선족의 의복은 모두 '중산복'과 '홍위병복장'으로 통일되었다. 음식은 개혁개방 이전까지 경제의 낙후로 식량난을 겪으면서 음식문화 보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혁개방 이후 농업생산이 발전됨에 따라 음식문화가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가옥에 있어서는 농촌에 새주택 마을이 건설되면서 생활편의를 위한 방이 증설되고 인민공사 집단주의 생산체제의 영향으로 외양간과 사당방(祠堂房)이 사라지는 등 조선족 가옥 구조에 변화가 나타났다. 도시에서는 직장 단위의 집합주택이 보편적이었다. 전통적인 놀이문화는 대부분 봉건적인 구습으로 치부되어 사라졌으며, 도시와 농촌에서는 모두 집단생활의 유지와 적응에 도움이 되는 축구, 배구, 농구 등과 같은 집단적 체육운동이 적극 장려되어 보편화되었다.

셋째, 개혁개방 이후 시기는 한국의 대연변지역 투자가 급증하고 한국관광객과 조선족들의 '한국 나들이'가 증가하는 등 인적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모국 문화의 확산이 증대되고 있다. 언어에 있어서는 외국과의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각종 외국어 교육과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종교에 있어서는 중국이 종교신앙을 허용함에 따라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선교사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기독교 중심의 종교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생활문화 측면에서 의복은 한국과의 교류가 밀접해 지면서 과거의 '중산복'과 '홍위병복장' 일색에서 한족과 조선족 의복 모두 다양한 현대식 의복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명절이나 중요한 행사의 경우는 여전히 민족의복을 애용한다. 음식의 경우 한국 음식문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음식과 현대적인 한국음식이 어울려진 음식문화가 보편화되었다. 가옥의 경우 한국문화의 영향으로 농촌에는 현대식 가옥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에는 한국식 아파트가 보급되고 있다. 놀이문화에서는 민족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족정책과 한국 전통문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민속놀이들이 부활되고 있다. 또한 도시에는 한국식 소비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인문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민족놀이 위주의 놀이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발견한 연변지역의 문화적 측면에서 존재하는 문제는 곧 조선족 특색이 짙은 중국과도 구별되고 모국과도 구분되는 확고한 민족문화가 아직 자리 잡고 있지 않은 것이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가 밀접해 지면서 한국의 문화가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은 자칫하면 조선족으로서의 특징이 소실될 우려도 있다. 이는 조선족 사회의 문화적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조선족 사회에서는 세방화(globalization)시대에 부합되는 지역적 특색이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조선족 문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註

- 1) 국경에 의해 구획된 형태로 존재하는 ‘국민국가’는 일반적으로는 내부에 다양한 민족집단을 포용하고 있다. 이때 국가영역과 민족집단의 분포영역의 사이에는 간격이 있을 수 있다. 동일민족이면서도 복수의 국가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과정 민족’이란 용어는 주로 국민이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으로 서로 동일한 민족이라는 의식을 공유해 가면서도 복수의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상태에 있는 민족집단, 주재국과 모국의 접경지역에 집중거주 하는 소수민족을 지칭한다.
- 2) 청조의 주 세력이 산해관(山海關) 이남으로 진출한 후, 백두산 동부, 영고탑(寧古塔)(현재의 영안(寧安)) 남부, 훈춘 서부, 두만강 북부, 압록강 북부 등의 지역을 만족의 발상지라고 주장하면서 이 지역에서 생활하던 주민들을 쫓아내고 ‘봉금지책(封禁政策)’을 실시하였는데, 이 지역을 일반적으로 ‘봉금구’라고 한다. 초기에는 관리가 매우 심했는데, 백성의 출입이 일절 금지되었으며, 다만 동북의 귀족과 고급관리들의 사냥터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일부 밀렵꾼들과 심마니 등이 불법사냥과 채집을 하였다. 청조 중엽 이후부터 봉금령이 점차 느슨해지면서 백성들도 잠입하여 약초를 채집하거나 사냥하기 시작하였다. 1849년 전국의 인구는 4억 1천 2백여만명에 달했으나 중국면적의 약 5분의 1을 점하는 동북지역에는 3백만 정도 밖에 없었다(東北近百年史講話, 1987).
- 3) 일제는 러일전쟁(1904-5)에서 승리함에 따라 러시아가 동북지역에서 획득한 대련(大連)의 조차권, 만철과 지선의 부설권 및 무순(撫順)탄광의 개발권 등을 손에 넣음으로서 동북지역 남부에 있어서 그들의 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동북침략은

구미열강의 반대에 부딪침에 따라 동북지역을 침략하는 다른 도경을 찾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변지역에 조선인이 집중된 사정을 파악하고 조선인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연변지역에서의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였다(홍종필, 1993). 그리하여 일본은 연변지역을 동북을 침략하는 ‘요충지’로 삼고 “간도는 북함(북한을 지칭함)과 길림 사이의 요충지이다... 우리의 공격이 조선으로부터 길림으로 진출하자면 우선 간도를 점령하지 않으면 목적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군벌과 어용문인들도 “대련과 안동(安東)(현재의 단둥(丹東))으로부터 동북지역으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봉천(奉天)(현재의 심양(瀋陽))을 경유해야 하는데, 이는 중국인들의 주의를 일으키게 되어 매우 큰 저해력이 있게 된다. 그러나 간도로 드나들면 이런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동북지역을 침략하는데 있어서 대련과 여순을 ‘앞문’으로 보고, 연변지역을 ‘뒷문’으로 보았다(조선족략사편찬조편, 1987).

- 4) 조선인이 연변지역으로의 이주는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조선인 이주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제 시기의 이주이다.
- 5) 중국의 사회과학 발전역사는 약 100여 년이 되지만 사회과학이 중요시된 시기는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만청 시기와 민국 시기의 역사 변혁기로서 많은 젊은 지식인들이 국외로 유학하여 서구의 사회과학(특히 맑시즘)을 학습하여 중국의 사회변혁을 위해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해방 후부터 개혁개방 이전까지는 계급투쟁이 유일한 사회문제라는 그릇된 인식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사회과학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사회과학의 정체를 겪었다. 두 번째 시기는 개혁개방 이후로서 새로운 사회문제가 속출함에 따라 비효통(費孝通)과 같은 저명한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사회과학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실사구시적인 지도사상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과학이 다시 회복되어 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구이론과 방법의 낙후 및 자료수집의 어려움 때문에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費孝通, 2000. 鄭杭生, 2000).
- 6) 구체적으로 도시주민에 대한 조사는 연길시와 용정시에서 진행했고, 농촌주민에 대한 조사는 화룡시 동성향 청호촌(淸湖村)과 하동촌(河東村), 연길시 소영진(小營鎮) 민주촌(民主村), 용정시 조양천진(朝陽川鎮) 횡도촌(橫道村)과 유신촌(柳新村)에서 진행했다.
- 7) 연변지역의 첫 번째 서숙은 1887년 두만강 연안의 자동촌(子洞村)에 설립되었다. 이주민이 증가되면서 조선인 서숙도 증가하기 시작하여 1914년에 이르러서는 116개에 달했다.
- 8) 당시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최종목적을 조선의 독립으로 상징하여 민족의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들 이기 때문에 대부분 귀향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제가 패망한 후에 동북지역에서 한반도로 귀환한 조선인은 재만 조선인 전체수의 약 50%를 점한다고 한다.

- 9) 중국의 국부로 존경받는 손중산(손문)이 입었던 의복과 비슷한 모양의 옷을 중산복이라고 한다.
- 10) 가장 큰 차이는 한족 아파트 내부구조는 입식 생활에 편리한 구조로서 온돌이 없고, 조선족 아파트 내부구조는 좌식 생활에 편리한 온돌이 있는 것이다.
- 11) 연변지역에서 가장 일찍이 선보인 한국식 아파트는 한국의 한신공영(주)에서 1994년에 연길에 건설한 한신아파트(100세대)이다.
- 12) 예를 들면, 한국의 한민족언어문화진흥회는 무려 700조에 달하는 민속악기를 연변지역을 비롯하여 동북3성의 조선족 촌과 가두, 학교에 기증하여 이들이 민족문화를 보존하는 데에 공헌하였다(연변일보, 2003년 11월 12일자).
- 13) 여기에는 농악놀이, 지신밟기, 달집태우기, 화투, 율놀이 등이 포함된다.
- 14) 현재 연변의 농촌 마을들에서는 전통을 살려 '통소의 고향', '중이 오리기 고향', '북의 고향' 등 각자 특색이 있는 문화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강위원, 2002). 현재 연변지역의 69개 향과 진에서 단독으로 문화소(文化所)를 설치한 곳이 48개, 종합적으로 문화기구를 설치한 곳이 21개 되며, 문화소의 면적은 44,130㎡, 활동장소는 59,371㎡에 달한다(연변일보, 12월 13일자).

文 獻

강위원, 2002, 조선족의 오늘, 신유.
 김경식 등, 2001, 중국 조선족 생활사, 문음사.
 김성태, 1997,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조선교회 형성과정과 그에 따른 정체성 고찰, 기독교 사상, 97년 4월호, 22-23.
 김영모 (편), 1992, 중국조선족사회 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김영원, 1992, 조선족 민속연구.
 김준봉 등, 2000, 중국 연변 조선족 전통민가의 형식적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7), 81.
 계근호, 2001, 중국 동북지방 조선족 교육열의 역사적 전개양상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29.
 남일성, 1995, 우리글 전용과 우리실제, 최상록외, 중국 조선족교육의 현황과 전망, 연변대학출판사.
 민족, 1935, 화룡현 일반정황.
 박경수, 1987, 연변농업경제사, 연변인민출판사.
 박경휘, 1994, 중국 조선족의 의식주 생활풍습, 집문당.
 박영순, 1988, 재중한인들의 한국어 연구현황과 언어이질성에 대하여, 아시아문제연구소, 143.

연변대학교육학심리학교연실·연변민족교육연구소 (편), 1987, 연변조선족교육사, 연변인민출판사.
 연변일보, 2003년 12월 13일자.
 연변일보, 2003년 11월 12일자.
 유석춘, 1999, 식민지배의 다양성과 탈식민지배의 전개, 전통과 현대, 10, 50-53.
 인병국, 1997, 조선족교회와 중국선교, 에스라서원.
 장보웅, 1992, 중국 동북지방 조선족의 민가 연구, 지리학, 27(2), 127.
 장의원, 1994, 중국 조선족의 언어생활에 대한 고찰, 연변인민출판사.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록, 1922, 제11회 회의록.
 조선족략사편찬조편, 1987, 조선족략사, 연변인민출판사.
 채현석, 1994, 만주지역의 한국인 교회사, 한국기독교와 역사, 3, 73.
 최상록, 중국조선족교육의 현황과 전망, 연변대학출판사.
 한상복·권태환, 1993, 중국연변의 조선족, 서울대학교 출판부.
 허명철, 2000, 중국조선족집거구 문제에 대한 사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3(1)호, 225-226.
 허 원, 1996, 최근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종교 인식 변화, 동아시아역사연구, 1, 97.
 허 원, 1996, 최근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종교 정책의 변화, 동아시아역사연구, 1, 96.
 홍종필, 1993, 만주(중국동북지방) 조선인이민의 전개과정 소고, 명지사론, 5, 88.
 훈춘현지 권17, 1927.
 金春善, 2001, 延邊地區朝鮮族社會的形成研究, 吉林人民出版社.
 金炳浩, 1997, 中國朝鮮族的宗教狀況, 民族與文化, 5, 111.
 東北近百年史講話, 1987, 黑龍江省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潘龍海 等, 2002, 跨入21世紀的中國朝鮮族, 延邊大學出版社.
 費孝通, 2000, 中國社會科學還有很長的路要走, 光明日報, 7月 13日.
 孫春日, 2002, 中國朝鮮族社會文化發展史, 延邊教育出版社.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1992, 建國以來重要文獻

延邊朝鮮族自治州的 文化的 變化에 關한 研究

選編(第1冊), 中央文獻出版社.
張國強, 1997, 我國中學外語教育的歷程, 課程教材教法, 7, 38-42.
林軍, 1989, 中蘇關係史(1689~1989), 黑龍江教育出版社.
延邊朝鮮族自治州計劃委員會, 2001, 關於延邊朝鮮族自治州2001年基礎設施建設項目爭取國家投資的請示.

延邊朝鮮族自治州教育志編纂委員會編, 1992, 延邊朝鮮族自治州教育志, 東北朝鮮民族教育出版社.
曹琦, 1991, 世界三大宗教在中國, 中國社會科學出版社.
鄭杭生, 社會學百年軌迹啓示, <http://www.bipopss.gov.cn>

(접수 : 2005. 9. 10, 채택 : 2005. 12. 10)